

『이계룡전』에 나타난 효담론의 구도

신태수*

Ⅱ 차례 Ⅱ

- I. 문제제기
- II. 효담론의 구도, 그 ‘大孝小忠’
- III. 대효소충 구도의 구체화 방법
- IV. 대효소충 구도로 본 절대효의 위상
- V. 결론

【국문초록】

『이계룡전』은 유일본으로서 ‘고소설과의 연속성이 두드러진 신작 구소설’이다. 구도의 측면에서 볼 때 『이계룡전』은 뚜렷한 특징을 지닌다. 효행 범주를 아주 크게 설정하면서도 충행 범주는 아주 작게 설정함으로써 ‘大孝小忠’ 구도를 형성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작자는 대효소충 구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인물의 욕망’과 ‘사건의 전개’에 주안점을 둔다. 인물의 욕망은 ‘절대효 구현의 욕망’으로 나타나고, 사건의 전개는 ‘누적과 비약’으로 나타난다. 구체화 방법을 통해 절대효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하는 까닭은 절대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절대효는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가? 효행 주체를 ‘감정 없는 인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개화기의 물질적 욕망을 배척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때, 물질적 차원에 대한 정신적 차원의 대응이 개화기를 사는 작자의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대효소충 구도, 절대효, 누적과 비약, 물질적 욕망, 구체화 방법, 감정 없는 인간

* 영남대 교양학부 교수.

I. 문제제기

『이계룡전』은 유일본으로서 나손 김동욱 선생 문고본의 효행소설이다. 20세기초의 공덕미 수납 용지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본이 없기 때문에 창작 연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개화기 이전의 작품을 轉寫했다고 한다면 고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개화기에 새롭게 지어졌다고 한다면 이른바 ‘신작 구소설’¹⁾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쪽이라고 선불리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후자 쪽일 개연성이 높다. 이본이 발견되지 않고 기록 연대가 개화기가 분명하며 비슷한 시기에 몇몇 효행소설이 창작된 이상,²⁾ 현재로서는 신작 구소설로 간주해야 옳을 성싶다. 신작 구소설이라고 해서 고소설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당대의 정황이나 어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신작 구소설이면서도 ‘고소설과의 연속성이 두드러진 작품’³⁾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계룡전』은 효행담의 집성체이다. 이성희의 효행, 계룡 삼형제의 효행, 이성희 부인의 효행을 집적해놓았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주동적 인물의 존재 이유는孝이다. 이성희와 그 부인은 부모를 위해 살고, 계룡 삼형제 또한 부모를 위해 산다. 가족 단위의 효행이라면 단조로울 듯하나, 그렇지 않다. 허벅지 살을 빼어 고아 먹이고, 엄동설한에 진귀한 먹거리를 구하고, 부모 대신에 죽기를 소망하고, 저승에 가서 閻王에게 부친의 수명을 늘려달라고 청탁하고, 부모 뜻을 받들어서 나라 지키기에 앞장서고, 부모

1) ‘구소설’과 ‘신작 구소설’이라는 용어는 각기 조동일과 이은숙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구소설’의 경우는 조동일, 『한국문학통사4』(지식산업사, 1986), p.205에서 찾아볼 수 있고, ‘신작 구소설’의 경우는 이은숙, 『신작 구소설의 성격을 통해 본 연구 전망』, 『국어문학』34(국어문학회, 1999), p.349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진대방전』, 『육효자전』, 『육낭자전』, 『부용전』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3) 이은숙, 앞의 글, p.352에 의하면, 신작 구소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고소설과의 연속성이 두드러진 작품 유형과 고소설과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작품 유형이 그것이다.

에게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니, 효행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다양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효자가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고 凡人에서 超人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기이하기까지 하다. 다양하고 기이한 효행 양상은 孝의 절대성을 시사한다. 孝는 모든 것을 이루고 다른 어떤 이념보다 우위에 선다.

지금까지 『이계룡전』에 대한 연구는 별반 이루어지지 않았다. 書誌와 내용을 개략적으로 밝히거나 특정 논점을 거론할 때 부분적으로 다룬 경우는 있지만,⁴⁾ 『이계룡전』을 단독으로 조명한 경우는 두 편⁵⁾의 논문뿐이다. 두 편의 논문은 작품의 전반적 성격을 밝히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구성과 표현방식 그리고 다양한 모티프를 통해 작중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선명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이계룡전』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작품 연구를 표층적 차원과 심층적 차원으로 구분해본다면,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는 어디까지나 표층적 차원에 속한다. 표층적 차원을 토대로 하여 심층적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작품의 유형적 특징, 시대적 상황과 작품 내용의 관계, 작중인물과 화자의 가치관 및 세계관, 소설사적 의의 등을 살펴야 심층적 차원의 연구로 진입한다고

4) 해당 논저를 들면 다음과 같다. 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 教學社, 1981, pp.639-642.; 李賢洙, 「古典小說에 나타난 冥府說話 考究」, 『韓國文學研究』4, 東國大 韓國文學研究所, 1981, p.121.; 조재현, 「고전소설에 나타난 저승계 연구」, 『어문연구』3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pp.170-171.; 박정식, 「고소설에 나타난 冥府의 형상과 작중 역할」, 『語文學』94, 韓國語文學會, 2006, pp.179-188.; 소인호, 「저승 체험담의 서사문학적 전개」, 『우리文學研究』27, 우리문화회, 2009, pp.119-125. 첫 번째 논저에서는 서지와 내용을 밝히고 있고, 그 이하 논저에서는 저승체험담을 다룰 때 『이계룡전』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5) 김응환, 「〈이계룡전〉에 반영된 윤리덕목의 소설적 구현」, 『民族學研究』4, 韓國民族學會, 2000, pp.1-122.; 남은희, 「『이계룡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p.179-203.

할 수 있다.

필자는 『이계룡전』을 심층적 차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이계룡전』은 전대 고소설의 전통을 수용하여 개화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려는 측면이 강하므로, 심층적 차원의 연구는 필요하고도 긴급하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론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고에서 구사할 방법론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작품의 내적 측면을 주목한다. 텍스트가 지닌 담론⁶⁾의 성격, 작중인물의 행동 양상, 효행모티프 간의 관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 작품의 내적 측면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외적 측면을 주목한다. 작중인물의 확고부동한 가치관 즉 절대효⁷⁾ 구현 의지, 인물과 이념의 관계, 시대적 풍조에 대한 효 윤리의 대응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방법론을 적절히 구사할 때, 『이계룡전』의 연구는 비로소 표층적 차원의 단계를 넘어서서 심층적 차원의 단계로 진입하리라 믿는다.

II. 효담론의 구도, 그 ‘大孝小忠’

『이계룡전』에는 신화와 성리학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인간과 동물, 지

6) 필자는 푸코의 담론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푸코는 사회 내의 제반 관계, 즉 대립, 갈등, 조화 등의 국면을 뚜렷하게 함의하는 언술 양태를 담론이라고 했다. 『이계룡전』에서는 여러 모티프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사회의 제반 현상에 대해 일정한 목소리를 내므로, 푸코의 담론 개념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이정우 역, 새길, 1998, p.17 참조

7) 신태수, 『『晉陽志』〈孝行條〉의 담론 방식과 하층인의 효의식』(『우리말글』64(우리말글학회, 2015, pp.279-290)에 의하면, 절대효는 이념이 인물을 지배하는 통로요 인물이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동력이다. 『이계룡전』에서도 이와 같은 절대효가 나타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상계와 천상계, 인간과 귀신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신화적 성격이 담겼다고 할 수 있고, 忠·孝·烈이라는 윤리적 덕목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리학적 성격이 담겼다고 할 수 있다. 『이계룡전』이 신화와 성리학의 결합체나 하면 그렇지는 않다. 외부 사상이 고소설에 들어와서 구성요소가 된 이상, 모티프이지만 할 뿐이지 외부 사상 그대로는 아니다. 물론, 신화와 성리학이 고소설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티프로써 잘 기능한다는 보장은 없다. 다시 말해, 외부의 사상이 고소설에 들어와서 모티프로써 잘 기능하는 수도 있고, 잘 기능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이계룡전』은 전자에 속한다. 전자에 속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런 근거가 무엇을 시사하는가?

논점을 예각화하기 위해서는 효행담을 담론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효행담이 인물의 사회의식을 擔持하며 열행담·충행담과 함께 위계 질서를 형성한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위계 질서라고 할 때 효행담과 열행담과 충행담 간의 우위 다툼이나 대화적 국면을 떠올릴 수 있다. 결국, 효행담이 어떤 식으로든 열행담·충행담과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므로, 각 이야기를 뽑아내고 삼자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충행담과 효행담과 열행담이 상호 별개인지, 효행담과 열행담·충행담이 목적과 도구 혹은 도구와 목적의 관계인지, 효행담이 충행담과 열행담 중에서 어느 한 쪽과 친연성을 띠는지가 드러날 터이다. 대부분의 인물이 忠이나 孝나 烈 같은 윤리적 덕목에 입각해 있으니, 윤리적 덕목을 단락⁸⁾별로 정리하면 담론 양상이 드러나리라 본다.

A. 이성희의 효행담

01. 부모의 병환이 깊어지자 자기 몸의 살을 베어서 올리고자 한다.
02. 산신으로부터 사슴을 얻은 뒤 녹용과 고기를 약으로 삼는다.

8) 사건의 시작과 끝을 하나로 단위로 보고, 그 하나의 단위를 단락이라 칭하고자 한다.

03. 낚싯대를 잃고 난감해 하니, 잉어가 갑자기 냇가로 튀어나온다.
04. 구시월에 천우신조로 오이를 구해 노모의 소원을 들어드린다.
05. 사망 전 처에게 노모를 봉양하라고 하며 꼭 귀환하겠다고 한다.
06. 염왕전에서 방성대곡하며 효를 다하게 해달라고 청원한다.
07. 효자로 인정받아 염왕으로부터 수명 십삼 년을 더 늘리게 된다.
08. 재생 후 노모 봉양하기를 더욱 극진히 한다.
09. 병석에서 자기로 인해 노모의 발이 상했다고 하며 개탄한다.
10. 부모 구물 후, 오로지 죽으로 연명하면서 주야로 애통해 한다.

B. 이성희 처의 효행담

01. 병든 시모를 위해 자기 몸의 살을 베어 남편보다 먼저 올린다.
02. 산신에게 돼지를 줄 테니 사슴 고기를 달라고 축원한다.
03. 장사치에게 치마폭을 떼어주고 받은 황옥을 시모에게 먹인다.
04. 노망 난 시모에게 맞으면서도 기력이 있어서 반갑다고 한다.
05. 산신에게 얻은 사슴고기로서 시모와 남편의 원기를 회복시킨다.

C. 이성희 처의 열행담

01. 남편이 여우에게 홀려 병이 들자 자기 잘못으로 돌린다.
02. 산신에게 남편 대신에 자기 자신이 죽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03. 山祭를 방해하는 계집의 목을 서슴지 않고 칼로 찌른다.
04. 남편 병환에 차도가 없자 산신에게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한다.
05. 남편을 살려주지만 하면 범에게 기꺼이 잡아먹히겠다고 한다.
06. 산신으로부터 여우를 넘겨받아 남편의 병을 낫도록 한다.
07. 산신이 재차 가져다준 사슴고기로서 시부모와 가장을 봉양한다.
08. 남편이 죽자 자기 자신도 따라 죽으려고 두 번이나 시도한다.
09. 천지신명에게 남편이 계룡의 명 잇기를 밤낮으로 축원한다.

D. 계룡 삼형제의 충행담

01. 계룡은 역심을 품고 자기를 회유하려는 마철을 크게 질책한다.
02. 마철이 장수를 보내 죽이려 했으나, 용력과 도술로써 물리친다.
03. 계룡 삼형제가 압송되었으면서도 황제에게 대책을 충간한다.
04. 황제가 옥에 구금하자, 얼마 뒤 파옥하고 마철 대군과 맞선다.

- 05. 황제로부터 계룡은 선봉장을 명받고 이룡은 대장을 명받는다.
- 06. 계룡 삼형제는 황제를 지키는 한편, 마철의 대군을 격파한다.

E. 계룡 삼형제의 효행

- 01. 계룡이 모친을 만단으로 만류하며 자결하지 못하도록 설득한다.
- 02. 이룡이 계교를 써서 식음을 전폐한 부친에게 음식을 먹게 한다.
- 03. 계룡이 三喪 후 부친이 기세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슬퍼한다.
- 04. 계룡이 구명산에서 자기 壽命이 부친에게 가도록 청원한다.
- 05. 저승에 가서 자기 수명이 부친에게 가도록 제차 청원한다.
- 06. 염왕의 시험을 통과하고 부친 수명을 50년으로 늘어나게 한다.
- 07. 이룡 형제도 모친을 따라 부친이 형의 명 잇기를 축원한다.
- 08. 계룡 삼형제는 누차 계속된 부친의 혼계를 공손하게 듣는다.
- 09. 계룡 삼형제가 마철의 난을 진압하고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한다.

A~E는 효행담·열행담·충행담의 내용이다. 『이계룡전』이 충행담·효행담·열행담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A~E가 작품 전체의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행담·열행담·충행담의 비중이 대등한가 하면 그렇지지는 않다. 단락의 내용을 볼 때 효행담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열행담·충행담은 효행담에 비해 비중이 적다. 효행담은 A, B, E의 세 가지 유형에서 나타나고, 열행담은 C의 한 가지 유형에서 나타나고, 충행담은 D의 한 가지 유형에서 나타난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열행담·충행담이 독자성을 지니는지가 의문이다.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여 독자성을 지닌다고 여긴다면 오판이다. 효행담 없이는 『이계룡전』의 주제가 표출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열행담·충행담은 독자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효행담을 통해서만 열행담·충행담은 존재 의의를 지니게 된다.

열행담·충행담의 존재 의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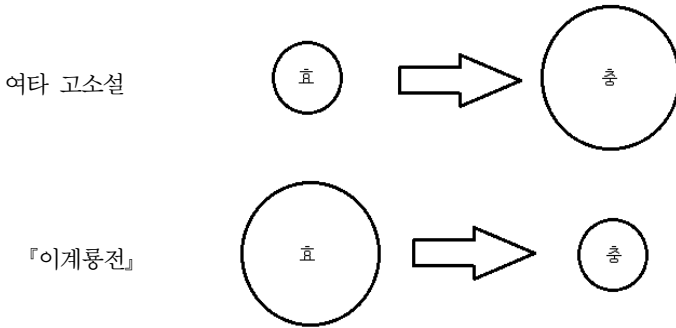
행담에서는 이성희 처의 행위를 주목한다. 이성희 처는 孝를 절대가치로 여길 뿐이고, 의외로 烈을 절대가치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성희 처가 시부모를 위해 열행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⁹⁾ 烈을 孝의 구현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인상을 준다. 한편, 충행담에서는 ‘忠=孝의 잉여물’라는 인식을 주목한다. D에 의하면 ‘孝의 정수가 넘쳐흐른 형태’가 곧 忠이다. 계룡 삼형제가 부모로부터 가정윤리를 철저히 습득하고 외부로 표출하다 보니, 반적을 진압하고 황제를 구원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孝의 정수가 넘쳐흐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忠은 불가능했다. 열행담에서는 烈을 孝의 구현 수단이라고 하고 충행담에서는 忠을 孝의 정수가 넘쳐흐른 형태라고 하므로, 열행담과 충행담 그 자체로는 독자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성희 가족의 열행담·충행담은 일반적인 열행담·충행담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열행담에서는 烈을 孝와 대등하게 취급하지만, 『이계룡전』에서는 그렇지 않다. 열행담에서는 烈을 孝의 구현 수단으로 본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즉, 열행담에서 孝가 烈보다 더 무겁다는 논법을 취하므로, 일반적인 열행담과는 달라졌다. 충행담은 더 많이 다르다. 일반적인 충행담에서는 ‘忠=확장된 孝’¹⁰⁾을 거론하게 마련이지만, 『이계룡전』의 충행담에서는 忠을 ‘孝의 정수가 표출된 형태’로 형상화하므로, 孝의 정수가 넘쳐흘러 밖으로 표출되어야 비로소 忠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볼

9) 섬겨야 할 대상이 남편 단독일 때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섬겨야 할 대상이 시모와 남편인 경우에는 시모를 우선시하거나 시모만을 택한다. 인물별 답문 양상을 정리한 유형 A~E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로 한다. 단락 B-03에서는 시모에게만 황육을 먹이고 단락 B-05에서는 남편보다 시모를 우선시한다. 烈보다 孝를 앞세운다는 언급이 여기서 가능해진다.

10) 『孝經』事君章에 ‘확장된 孝’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孝子が 어버이를 섬기고 군주를 섬기는 단계를 거칠 때 立身の 경지에 이른다고 하므로, ‘확장된 孝’論이라 할 수 있다. ‘확장된 孝’論이 통치 차원에서는 ‘孝治’로 불린다.

때, 열행담은 다소 벗어났고 충행담은 아주 많이 벗어났다. 열행담보다 충행담이 일반적 경향을 더 많이 벗어난다는 점에서, 『이계룡전』의 작자가 ‘효행-충행’의 일반적 인식을 크게 손질했다고 할 수 있다.



도표를 보면, 『이계룡전』의 작자는 효행 범주를 아주 크게 설정하고 충행 범주를 아주 작게 설정했다. 구도의 차원에서는 ‘大孝小忠’이라 부를 수 있다. 충과 효를 다룬 여타 고소설¹¹⁾이 ‘小孝大忠’ 구도를 보인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계룡전』의 작자는 당대의 풍조나 전통적 고소설의 경향 그 어느 쪽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계룡전』의 작자는 기존의 통념을 이중으로 뒤집었다. 개화기의 신문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 차례 뒤집었다고 할 수 있고, 소효대충 구도를 거부하고 대효소충 구도를 새롭게 내세웠기 때문에 또 한 차례 뒤집었다고 할 수 있다. 뒤집기 위해서는 뒤집을 수 있는 쪽에 힘을 부여해야 한다. 작자가 효행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열행담과 충행담에 비중을 적게 둔 까닭이 여

11) 고소설의 여러 유형에서 충과 효를 함께 다루기는 하나, 소설 구도의 차원에서 충과 효를 다룬 유형은 그리 많지 않다. 이른바 영웅소설과 윤리소설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기에 있다. 그 결과, ‘대효소충’ 구도가 새롭게 탄생한다.

대효소충 구도의 특징

□ 시각 : 우주론적 시각

1. 인간과 동물이 말을 한다.
2. 천상계와 지상계가 친연성이 있고 가깝다.
3. 천상의 性命과 지상의 孝悌가 하나로 통한다.

□ 이념 : 孝至上主義

1. 효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든 감수해야 한다.
2. 부모는 절대적 존재이므로 어떤 요구도 해서는 안 된다.

대효소충 구도의 특징은 두 가지다. 우주론적 시각과 효지상주의가 그것이다. 大虎와 며느리가 말을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이성희·이계룡 부자가 특별한 수단 없이 冥府를 왕래한다든지 효자의 간절한 소원을 하늘에서 들어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우주론적 시각을 상징할 수 있고, 아버이를 위해 割股¹²⁾하고 자기 수명을 아버이가 잇도록 해야 한다고 여긴다든지 망령이 나서 가족을 괴롭혀도 반발하거나 제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효지상주의를 상징할 수 있다. 우주론적 시각과 효지상주의가 긴밀한 관계이기는 하겠으나, 어떤 방식으로 긴밀한지가 관건이다. 결론부터 범박하게 말하면, 효지상주의가 근본이 되고 우주론적 시각이 효지상주의를 받

12) 割股란 ‘허벅지 살을 벤다.’는 의미를 지닌다. 아버이의 원기를 복돋우거나 병환을 낮게 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엽기적인 효행을 한다. 효행록류에서 斷指와 함께 할고를 최고의 효행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살을 베어 아버지께 올렸다고 하면 으레 할고를 지칭한다고 받아들였다. 『이계룡전』에서는 단지 살을 벤다고 할 뿐이고 허벅지 살을 벤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 효행에 의거해서 할고로 판단하고자 한다. 任明玉, 『中國割股孝行故事 小考』, 『中國學論叢』9, 韓國中國文化學會, 2000, pp.195-222 참조.

쳐주는 기능을 한다. 우주론적 시각과 孝至上主義를 하나씩 하나씩 살피면서 이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주론적 시각의 연원은 유구하다. 우주론적 시각은 대칭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므로,¹³⁾ 대칭적 세계관의 추이를 살피면 우주론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속계와 이계, 인간과 사물, 인간과 귀신 등의 상대항이 각기 대등하면서도 내적 연관성을 긴밀하게 공유한다고 믿는 우주론적 시각이 곧 대칭적 세계관이므로, 대칭적 세계관은 언제나 우주론적 시각의 범주에 든다. 대칭적 세계관은 신화시대에 형성되었지만, 신화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신화적 질서를 믿거나 소망하는 자에게서 빈번하게 표출되곤 한다. 신화시대의 대칭적 세계관이 『이계룡전』에서 나타나는 까닭이 이로써 해명된다. 『이계룡전』의 작자는 문명적 사고가 이입되기 이전의 상태, 즉 우주의 원초적 질서 속에서 孝를 형상화하고자 했을 것 같다.¹⁴⁾ 孝를 지순하면서도 신성한 경지에 두고자 함이 아닌가 한다.

한편, 효지상주의는 성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화자가 서두에서부터 주인공을 효자와 열녀라고 하며 성리학적 이념을 내세운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성리학에서는 孝를 절대적 理로 규정하며 도덕의 極處로 상정한다.¹⁵⁾ 인간이 구유한 선한 본성이 孝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적 理니 도덕의 극치니 하는 언급을 한다. 선한 본성이 신분에 관계없이 부여

13) 대칭적 세계관의 개념 및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신태수, 『대칭적 세계관의 전통과 서사문학』(새문사, 2007, pp.14-17)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14) 개화기는 전통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문명세계에 속한다. 문명세계에서는 효행 주체가 대효소충 구도를 형성할 수 없다. 효행 주체가 한미한데다가 가난하기조차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문명세계는 차별과 구별을 능사로 하므로, 효행 주체가 어떤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기도 어렵다. 당연히 담론의 중심에 설 수가 없게 된다.

15) 張載가 아버지를 하늘에 비유하고 程頤가 性命과 孝悌를 一統이라 규정한 경우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김덕균, 「성리학의 효사상 이해」, 『儒學研究』25, 忠南大 儒學研究所, 2011, pp.204-206쪽 참조.

되듯이, 孝 또한 신분에 관계없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다시 말해, 孝를 잘 실현하기만 하면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천명을 직접 수득할 수 있다. 천명 수득의 혜택은 효자만의 특권인 셈이다. 신분이 한미한 이성희 부부¹⁶⁾와 그 아들이 천명을 수득하는 까닭을 이런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계룡전』의 작자는 효지상주의에 입각하면 누구나 천명 수득의 주체가 된다고 하기 위해 성리학의 孝 理念을 가져왔으리라 여겨진다.

우주론적 시각과 효지상주의는 대효소충 구도를 형성하는 두 엔진이다. 차별과 구별이 없고 오직 원초적 질서만 있다고 하는 우주론적인 시각은 작가가 신화에서 가져온 엔진이고, 절대적 理가 신분을 초월한다고 하는 효지상주의는 작가가 성리학에서 가져온 엔진이다. 두 엔진의 원천이 다른 지라 부조화를 일으킬 만도 하나, 인간존재에 대해 규정한 원초적·근원적인 논법만 가져왔기 때문에 상이한 두 엔진이 오히려 기묘한 조화관계를 형성한다. 두 엔진이 하나의 거대한 엔진으로 재탄생했으니, 그런 엔진에서 나오는 스피크의 목소리 즉 담론도 유별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통해 한 가닥으로 담론을 정리해 볼 수 있다. “孝는 지순하고 신성하며 절대적인 理이다. 어버이에게 지성을 다하면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천명을 수득할 수 있다. 효자는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담론이 그것이다.

16) 『이계룡전』의 화자가 신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성희 처와 그 시모가 山祭를 지낼 때 밥밖에 올리지 않는다고 한 점을 신분 추정의 단서로 삼을 수 있다. 신분이 높았다면 화자가 신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리가 없고 제물이 그토록 소략하다고 할 리가 없다. 화자가 이성희의 신분을 한미하다고 인식했으리라 본다.

Ⅲ. 대효소충 구도의 구체화 방법

『이계룡전』의 작자는 畵家와 같다. 효자와 효부의 집은 크게 그리고 임금의 궁궐은 작게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구도의 원칙은 ‘절대적 孝 VS 상대적 忠’이다. 즉, 자식으로서 부모를 봉양하고 존엄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지만, 백성으로서 임금을 保衛하면 충분하고 임금의 존엄까지 보위할 것인지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구도의 원칙은 효행 주체가 상층신분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금의 은택을 받지 않았으니 갚아야 할 빚도 없고, 부귀영화를 꿈꾸지 않으니 목숨 걸고 충성할 필요도 없다. 대효소충 구도에 있어서 절대가치는 孝뿐이다. 孝를 어떻게 구체화하는가? 인물과 사건을 통해 孝의 구체화 방법을 따져보기로 한다.

1. 인물의 욕망 : 절대효 구현

『이계룡전』의 이성희 부부, 계룡 삼형제는 절대효의식을 지녔다.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할 정도로 갖춘 바가 많으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성희 부부는 어느 모로 보나 凡人에 불과하고 계룡 삼형제도 그리 다르지 않다. 계룡 삼형제의 경우, 전장에서 절륜한 용력을 드러내기는 하나, 수련에 의해 후천적으로 획득한 능력¹⁷⁾이어서 ‘범인의 자기 계발’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인물의 역량으로 보아 갖춘 바가 많지 않을 터인데도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여기는 이상, 효행 주체가 절대효 구현의 욕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절대효 구현의 욕망이 어떻게 나타나며 대효소충 구도에

17) “계룡 삼형제 공순이 업디려 충영하고 일일이 시형하며 또 공부를 무불통지하야 기운과 용량이 쏘흔 절등하야(pp.54-55)”라고 하는 데서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점검해보기로 한다.

- 1) 부모님이 흐시는 일은 우리의게 영화니 갈사록 정성을 진국이 흐시기를
바라노라 부모는 나을 나으신 비라 노흔흐신 부모님이 실슈를 흐실지라
도 조금도 뜻을 거스리지 말나(6쪽)
- 2) 가장은 날마다 고기를 낚가다가 봉양흐네티 나는 추호도 봉양함이 업스
니 이러흐고 남의 며나리 되리요(4쪽)

1)과 2)에는 절대효 구현의 욕망이 담겨 있다. 1)에서는 망령든 노모가 이성희 처를 마구 때리자 이성희가 그 처에게 조금도 부모의 뜻을 어기지 말자고 한다. 처를 開讞하는 말이지만, 곧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다. 본능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와도 기꺼이 인내하자는 취지이니, 비록 자식의 처지일망정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한편, 2)에서는 시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자탄한다. 자신의 정성이 본능의 벽을 넘지 못해 시모를 소홀히 섬겼다고 채찍질하므로, 본능 제어에 대한 강박감이 대단하다. 1)과 2)는 절대효 구현의 욕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준다. 본능과 관련된 인내심과 강박감이 그 형성 요인이다. 인내심과 강박감이 극처에 도달할 때 절대효가 구현된다는 점에서, 절대효란 ‘본능을 완전히 제압한 상태’가 된다.

본능을 완전히 제압하고 구현하는 효행이라면, 평범할 리가 없다. 『이계룡전』에서는 두 가지의 절대효가 나타난다. 일상적 효행과 극단적 효행이 그것이다. 일상적 효행이란 자기 자신의 삶은 완전히 접어두고 오로지 어버이만을 극진히 섬기는 행위이다. 매일 낚시를 해서 부모를 봉양한다든지 신선적 치마폭을 찢어서 황옥을 구한다든지 부모가 곡기를 끊자 갖가지 방법을 써서 먹게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편, 극단적 효행이란

엽기적이고 비일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심기는 행위이다. 할고를 하여 노모를 치유한다든지 구시월에 구경할 수 없는 오이를 구한다든지 자기의 수명을 들어내어 아버지의 수명을 잇게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상적 효행이든 극단적 효행이든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볼 때, 절대효의 구현은 효자 내지 효부에게 엄청난 공력을 요구한다.

효자 내지 효부가 절대효를 구현하려는 동인이 무엇인지가 관심사이다. 자기 목숨을 하찮다고 할 자는 드물기 때문에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절대효를 구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법도 하다. 이성희가 자식들에게 그른 일을 하면 폐해가 부모에게 미친다고 하는 훈계 장면¹⁸⁾이 해명의 단서이다. 그른 일을 하면 폐해가 부모에게 미친다고 했으니, 옳을 일을 하면 功業이 부모에게 미친다는 언급이 가능해진다. 이성희의 언급에는 ‘효행-포상’의 패러다임이 담겨 있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시대 이래 조정에서 효자를 포상했으니 누구든지 ‘효행-포상’의 패러다임을 직·간접적으로 안다고 해야 옳다. 이성희가 ‘효행-포상’의 패러다임을 모를 리 없다고 볼 때,¹⁹⁾ 이 ‘효행-포상’의 패러다임이 절대효를 추동하는 동인이라 여겨진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느라고 절대효를 구현하기도 했겠지만, ‘효행-포상’의 패러다임이 추동하기 때문에 절대효를 구현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효행-포상’의 패러다임은 국가적 차원의 통치 이념이다. 『삼강행실도』

18) 훈계의 전문을 인용하기로 한다. “착한 일 보면 본뜻기를 싱각하고 그른 일을 보면 불칙이 아려라 자식이 그른 일을 하면 욕이 부모에게 도라오나니라 비록 만반진슈를 날마다 봉양할지라도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면 불효되느니 너의가 만일 너이 훈계를 한나라도 헛치 못함미 잇스면 너 자식이 안이라(p.56)”가 그것이다.

19) 이성희는 市井人이면서 식자층에 속한다. 길거리에서 황옥을 사고 명부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시정인이고, 재생 후에 즐겨 독서하기 때문에 식자층이다. 세상 물정에도 밝고 고금의 事理도 헤아린다고 볼 때, ‘효행-포상’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반포교지>에 그런 점이 드러난다. 조정에서는 백성들에게 포상 등급을 제시하며 물질적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의 주체인 백성은 절대효를 金石의 이념으로 장착한다. 절대효라는 이념을 외면하기란 아주 어렵다. ‘효행-포상’의 패러다임이 가져다주는 환상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이다. 계층적 비약과 물질적 풍요가 달콤한 환상의 요체이다. 효행 주체가 달콤한 환상에 빠질 때, 절대효는 효행 주체에게 명령한다. “너와 孝는 하나이다. 孝에 다 너를 맞추어라!”라는 언급이 그것이다. 『이계룡전』의 효행 주체가 목숨을 내놓고 절대효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절대효는 뿌리 깊이 효행 주체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절대효의 지배가 지속되는 이상, 대효소충 구도는 효행 주체에 의해 확장·재확장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2. 사건의 전개 : 누적과 비약

효행 주체는 절대효를 많이 구현하고 있다. 절대효 구현의 회수를 헤아려보면, 이성희는 여섯 차례이고, 이성희 처는 네 차례이고, 이계룡은 세 차례이고, 이룡 형제는 한 차례이다. 다섯 명의 효행 주체가 무려 열네 차례나 절대효를 구현했으니, 『이계룡전』은 마치 절대효의 경연장과도 같다는 느낌을 준다. 절대효 구현이 예외 없이 극단적 효행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엽기적이고 비일상적인 효행이 그만큼 『이계룡전』 전체를 지배한다는 의미가 된다. 일상적 효행도 적지는 않지만, 극단적 효행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극단적 효행 사이의 틈새를 메워주는 기능을 할 뿐이고 독자적 위상을 점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절대효가 극단적 효행으로 나타나므로, 효행 주체별로 극단적 효행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극단적 효행은 『이계룡전』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계룡전』 이전의 문헌전승에 이미 상당수 실렸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예컨대, 『삼국

사기』·『삼국유사』의 효전승과 『삼강행실도』의 효전승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효전승은 중국의 史書類나 實記類에 담긴 효전승을 수용한 바이지만, 우리나라의 효전승도 발굴해서 함께 싣고 있다. 『삼강행실도』의 효전승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효행 주체를 기준으로 할 때 <효자편>에서 무려 111명이나 되는 효행 주체를 다루었다. 이 가운데서 88명은 중국의 효행 주체이고 23명은 한국의 효행 주체이다.²⁰⁾ 『이계룡전』의 효행 모티프는 『삼강행실도』의 특정 효전승과 유사하기 때문에 양자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효행 주체별로 극단적 효행 모티프를 정리한 다음 내용상 관련이 깊은 『삼강행실도』의 효전승을 병기하기로 한다.

□ 효행 주체별 극단적 효행

<A : 이성희의 경우>

01. 할고하여 노모의 병환 치유하기
02. 지성으로 천지신명 감동시키기
03. 낚시 없이 잉어 구득해 노모 봉양하기
04. 겨울철에 오이 구해 노모 봉양하기
05. 명부에서 노모 생각하며 방성대곡하기
06. 염왕으로부터 효자라 하여 수명늘리기
07. 부모 구물 후 죽만 먹으며 애통해하기

<B : 이성희 처의 경우>

01. 할고하여 시모의 병환 치유하기
02. 치마폭 찢어주고 황옥 구하기
03. 시모에게 맞으면서도 기뻐하기
04. 산신에게서 고기 얻어 시모 봉양하기

20) 신태수, 『『三綱行實圖』<孝子篇>의 功利的 談論』, 『어문학』127, (한국어문학회, 2015), pp.175-177 참조.

<C : 이계룡의 경우>

01. 자기 수명 들어내어 부친에게 잇기
02. 염왕에게 부친 수명 늘려달라고 빌기
03. 시험에 통과하고 부친 수명 50년 늘리기

<D : 이이룡 형제의 경우>

01. 부친이 형의 명 잇기를 빌기

□ 『이계룡전』의 극단적 효행과 『삼강행실도』의 효전승

割股 : A-01, B-01

→ 義婦割股, 向德割脾, 聖覺養母, 尉紹割股, 劉氏孝姑

感神 : A-02, A-04

→ 孟宗泣竹, 宗承生竹, 王彭泉湧, 虛之感神

求魚 : A-03

→ 江詩出鯉, 王祥剖冰, 王延躍魚, 成茂求魚

益壽 : A-06, C-01, C-02, C-03, D-01

→ 黔婁嘗糞, 王薦益壽, 楊嘯感天, 郭琮祈壽

哀毀 : A-07

→ 皐魚道哭, 孝娥包屍, 申屠哀感, 王哀廢詩, 不害捧屍, 季詮隨溺

悅杖 : B-03

→ 伯俞泣杖

『이계룡전』의 극단적 효행은 『삼강행실도』의 효전승과 상동성이 있다. 극단적 효행 모티프가 『삼강행실도』의 효전승에서 다수 발견된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悅杖’ 모티프 이외의 모티프가 『삼강행실도』에 네 차례 이상이나 나온다. 이로 보아, 『이계룡전』이 『삼강행실도』의 효전승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리라 본다. 영향 관계가 직접적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이계룡전』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면밀한 고증을 요하기는 하되 『이계룡전』

이 『삼강행실도』의 효전승을 수용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극단적 효행 사례가 열두 차례나 일치하는 경우를 다른 전승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²¹⁾ 『삼강행실도』 이외의 전승으로부터 수용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삼강행실도』가 널리 읽혔고 『이계룡전』의 작자도 읽었으리라 볼 때, 『이계룡전』의 작자가 직접적으로 수용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직접적 수용이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티프를 어떻게 활용하며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표출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계룡전』에서는 극단적 효행 모티프를 누적적으로 활용한다. 한 명의 효행 주체를 놓고 두 개 이상의 극단적 효행 모티프를 중첩시킨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여러 효행 주제 중에서 이성희의 경우는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일곱 개의 극단적 효행 모티프가 하나씩 쌓이면서 평범하되 비범한 인물상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하위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평범하지만, 극단적 효행을 일곱 차례나 구현하기 때문에 비범하다. 이런 인물상은 이성희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B, C, D에서 보듯, 이성희 처와 계룡 삼형제 또한 누적적 구성을 통해 평범하되 비범한 인물로 부상한다. 누적적 구성이 최대의 특징이므로, 가치판단은 바로 이 누적적 구성에 맞추어져야 한다.

개인 단위의 누적 A : 01+02+03+04+05+06+07

B : 01+02+03+04

C : 01+02+03

D : 01

가족 단위의 누적 A+B+C+D

21) 『진대방전』은 『삼강행실도』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다. 『삼강행실도』의 효행담 12편이 『진대방전』에 거의 그대로 담겼다는 점이 그 증거이다. 효행담 13편 중에서 극단적 효행은 8편에 걸쳐 나타난다. 극단적 효행이 적지 않지만, 『이계룡전』에 비할 비는 아니다.

정리한 바를 통해, 누적적 구성의 의의를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절대효의 의의가 점차 커진다는 점이다. 가령, '01+02' 현상을 보기로 한다. 표면적으로는 극단적 효행이 단순하게 결합하지만, 이면적으로는 '01'의 의의에 '02'의 의의가 포개지기 때문에 의의가 더 커진다. 개인 단위의 의의가 커진다면 개인 단위의 의의를 합한 가족 단위의 의의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 仁을 구현한다는 점이다. 程顥와 李滉은 仁을 '與天地萬物爲一體'라고 했다.²²⁾ 理法의 세계에서 인간과 사물이 교감한다고 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계통전』에서는 효행 주체가 천지신명이나 범이나 염라대왕과 소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의의를 종합해보면, 누적적 구성은 효행 주체를 비범하게 만드는 장치다. 이 장치로 인해 孝가 천상계로까지 뻗어나가므로, 孝의 주체는 웅당 우주의 功能에 참여하는 주역이 된다.

孝가 지상과 우주에서 가득 차고 넘치면, 어느 순간 비약적 단계가 나타난다. 그것이 하위계층의 忠이다. 하위계층이 평상시에 들어갈 수 없는 忠의 권역에 들어갔으니, 비약적 단계이다. 비약적 단계에 진입하게 된 요인은 전란 상황 때문이다. 外敵이 강성한 데 비해 상위계층은 미약하면 하위계층의 힘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온다. 역적 마철이 “사디문을 물밀 듯 드러오며 불을 지르고 좌충우돌하야 바로 꺾기로 짓쳐 드러가(79쪽)”자 조정에서 계룡 삼형제에게 장수 직급을 부여했으니, 가장 위급할 때가 하위계층에게 힘을 빌어야 할 시점이다. 장수 직급을 받는다는 설정은 소설 구도에서 중요하다. 대충소효 구도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누적적 구성이 대충소효 구도의 의의를 증대시키므로, 대효소충 구도가 누적적 구성을 필수 요건으로 삼는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22) 출처를 각기 밝히면 다음과 같다. 程顥, 『二程全書』〈識仁篇〉과 『退溪全書』卷7, 筭, 進聖學十圖筭 第2西銘圖가 그것이다. 이황의 경우, 『退溪全書』卷7, 經筵講義, 西銘考證講義에도 나온다.

IV. 대효소충 구도로 본 절대효의 위상

대효소충 구도는 절대효를 지향한다. 일상적 효행이나 극단적 효행이나 간에 至孝를 전제로 하므로, 孝라고 하면 절대효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대효소충 구도의 ‘대효’를 절대효의 전개 과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절대효의 권능은 지상계에서도 통용되고 천상계에서도 통용된다. 지상과 우주에 가득 차기도 하고, 인간의 유한한 수명을 연장하기도 하고, 삼라만상에 넘쳐서 忠의 권역에까지 흘러들어가기도 하고, 부모에게 부귀공명을 가져다주기도 한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절대효가 권능을 드러내는 까닭은 절대효가 인물을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이다. 절대효가 인물을 장악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며,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작품 내적 상황과 작품 외적 상황을 살피면서 해명해보기로 한다.

1. 등장인물에 대한 절대효의 우위

『이계룡전』의 효행 주체는 凡人과는 다르다. 한번 결심하면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어떤 일에서든 감정이 동요되지 않고, 신체의 특정 부위를 베어 내면서도 고통을 하소연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말해, 효행 주체는 ‘자기 의사를 표출하지 못하는 목석’과 같다. 효행 주체도 범인처럼 자기 의사가 있다고 볼 때, 이른바 ‘목석’이 된 데는 그럴 만한 연유가 있을 성싶다. 아마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엇이 효행 주체를 지배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효행 주체를 지배하는 그 무엇’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혹자는 ‘효행 주체를 지배하는 그 무엇’이 ‘신념’이라고 예단할지 모르지만, 사리에 맞지 않다. 효행 주체의 사고방식이 신념의 적정선을 넘어서기 때문이다.²³⁾ 『이계룡전』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 확인해보는 길이 최선이다.

- 1) 부모의 병환이 중한지라 성희 주야 싱각다가 박그로 나와 살 혼 점을 베혀 들고 드러가니 부인이 갈오디 첩이 님의 인육을 으더시니 걱정 마르소서 흐거날(1쪽)
- 2) 너의드리 나를 죽이라고 인육을 베엿다 흐시고 몽치를 들고 좇차 단이시며 무슈 난타흐시니 부인의 머리가 마져 피 흘노니 피를 감초고 싱각흐되 존구씨서 그력이 화평흐여 계시니 황송흐여 안식을 화평이 흐여 공손흔 말삼으로 단정이 안져더니(5쪽)
- 3) 복두칠성의 날마다 절흐고 축슈흐여 갈오디 흐난님 덕턱으로 불효흔 쇼동의 명을 더러 아비의 명을 이워 주옵소서 일단성심으로 시종이 여일흐야 삼삭을 당흐미 무릅이 다러 피가 나며 무릅 꾸른 자리가 퍽이여 방아확이 되엇더라(42쪽)

1)~3)은 효행 주체의 절대효 구현 장면이다. 1)에서는 이성희 부부가 할고로써 노모 내지 시모를 치유하고자 한다. 피가 많이 흐르고 통증도 대단했을 터인데도 아프다고 하지 않는다. 2)에서는 이성희 처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한다. 몽둥이에 맞아 피가 흐른다면 통증이 대단하다고 해야 옳다. 통증을 하소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기만 하니 의외이다. 3)에서는 이계룡이 천치신명에게 자기 수명을 덜어내어 부친에게 주라고 청원한다. 자기 자신은 오래 살지 못하거나 곧 죽거나 할 터인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1)~3)에 입각할 때, ‘효행 주체를 지배하는 그 무엇’을 추론해볼 수 있다. 효행 주체가 맹목적으로 절대효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절대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소망과 신념, 즉 ‘孝 追隨主義’가 그 원인이 아닌가 한다. ‘孝 추수주의’의 최면에 빠진 효행 주체는 인간이되 ‘감정 없는 인간’

23) 신념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는 사상이나 생각을 실현하려는 의지’이다. 이 의지의 요소가 효행 주체의 사고방식을 강하게 지배한다. 문제는 효행 주체의 사고방식에 획일적이고 맹목적인 요소 또한 강하다는 데 있다. 획일적이고 맹목적 요소가 의지의 요소보다 많아지면 신념의 범주를 넘어선다는 언급이 가능하다.

이다.

특정 이념이 효행 주체에게 이입되어 자세나 태도로 드러나기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 내지 시일을 필요로 한다고 볼 때, 1)~3)의 현상이 발생하는 시간 내지 시일까지는 최소한 두 개 정도의 단계를 거쳤으리라 여겨진다. ‘孝 추수주의’ 이념을 지나는 과정이 제1단계요 ‘감정 없는 인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제2단계이다. 물론, 제2단계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 ‘감정 없는 인간’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때는 그 몇 배의 성과를 기대할 터이니, 최종 목표는 곧 ‘그 몇 배의 성과’이다. ‘효행-포상’ 패러다임에 의거하면, ‘포상’, 그것도 ‘아주 큰 포상’이 ‘그 몇 배의 성과’인 셈이다. 문제는 ‘아주 큰 포상’의 전제인 절대효가 대체로 효행 주체의 역량과 무관하게 구현된다는 데 있다. 효행 주체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절대효를 구현하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가능하다. 다음 사례에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 1) 낙시를 일코 즈튼흔 말이 이제는 낙시를 일엇스니 부모의 진지상의 반찬을 엇지히려요 하며 막막키 닌 불효흔 죄로다 하며 자탄하더니 호런 잉어가 무슈이 닌 깔가의로 쭈여나거날 쥬어다가 봉양하이라(4쪽)
- 2) 부모님씩옵서 하시느 말삼이 답답하고 번로하니 외이를 들리라 하니 잇씩느 맛참 구시월이라 …… 자탄왈 …… 잡슈코져 하는 것을 못 구하면 이런 불효 잇스리요 하고 체읍하더니 잇씩의 압담의 무근 오이 덩쿨이 잇거날 나가보니 과연 오이 둘이 열여거날 즉시 찌다 봉양하니(7쪽)
- 3) 성화난 부모를 싱각하고 쓸 아리 복지하여 방성통곡하야 가오디 염왕덕턱으로 칠십 노모의 머지 안이 한 세상을 다시 뵈시와 만고의 불회를 면케 하옵소서 하며 통곡하니 …… 염왕이 비답을 보시고 가오디 이제는 상계계서 너을 십습 연 가슈하야 계시니(32~33쪽)

1)~3)에서는 초월적 존재의 도움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에서는 이성희가 낚싯대를 잃고 자탄하자 잉어가 저절로 강가로 뛰어나왔다고 한다. 아마도 천지신명이 陰助하지 않았나 여겨진다.²⁴⁾ 2)에서는 이성희가 구시월에 오이를 구하지 못해 채읍하자 문득 오이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역시 천지신명의 음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3)에서는 죽어서 명부에 간 이성희가 방성대곡하며 지상계에 가서 부모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자 閻王이 上帝의 批答을 받아 해결해 주었다고 한다. 염왕과 상제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과 2)에서는 효행 주체가 천지신명의 도움을 받고 3)에서는 효행 주체가 염왕과 상제의 도움을 받고 있다. 효행 주체는 단지 자탄하거나 채읍하거나 방성대곡하거나 할 뿐이다. 어느 경우에서나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효를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

절대효를 설정하되 왜 인간존재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하는지가 의문이다. 인간존재의 한계 내에서도 절대효를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다.²⁵⁾ 정황이 이런데도 작자가 ‘인간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효’를 설정하는 까닭은 대효소충 구도에서 기인한다. 즉, 작자가 효행 범주를 아주 크면서도

24) 『이계룡전』의 화자가 천지신명의 음조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 『이계룡전』이 수용한 『삼강행실도』의 효전승을 보면 된다. 『삼강행실도』의 효전승인 <강시출리>·<왕연약어>·<성무구어>의 讚詩에는 음조의 주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강시출리>에서는 천지신명이 감통했다고 하고, <왕연약어>의 하늘과 땅이 감응했다고 하고, <성무구어>에서는 하늘이 감응했다고 한다. 이로 보건대, 『이계룡전』에 나타난 잉어구득 모티프를 천지신명과 관련지우지 않을 수 없다.

25) 자기 안위보다 부모 안위를 우선한다든지 범백일상에서 효성을 다한다든지 부모 위해 자기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태수, 「『三綱行實圖』<孝子篇>의 功利的 談論」(『어문학』127, 한국어문학회, 2015, pp.180-181)에서 다룬 바 있다.

인상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여기고, 인간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효를 설정했으리라 본다. 인간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효가 대충소효 구도의 필수 요소가 되면 등장인물의 가치는 하락한다. 작자가 대충소효 구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효행의 개별적인 실상보다는 절대효라는 범박한 이념을 더 선호할 터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 대충소효 구도에서는 이념이 인물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 이념이 인물을 지배하는 이상, 절대효만 드러나면 그만이고 구태여 효행 주체가 이성희나 이계룡일 필요는 없다.

2. 개화기 풍조에 대한 절대효의 반격

『이계룡전』은 ‘고소설과의 연속성이 두드러진 신작 구소설’이다. 개화기에 창작되었으면서도 고소설의 전통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고소설의 전통을 수용했다고 하면 창작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은 듯이 여기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전대의 고소설을 그대로 필사하는 경우와는 달리, 신작 구소설의 경우는 창작 당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하곤 한다. 전대의 설화나 고소설에서 제재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작자가 개화기에 살고 있는 이상, 인물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많다. 『이계룡전』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작자는 화자를 내세워 당대의 그릇된 현실을 반영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성희가 명부에서 목격했다고 하며 화자가 제시한 장면이 그것이다.

또 죄인을 추려 올일 제 첫지는 나라의 불충한 놈 업에 노코 무슈이 슈록흔 후의 칼을 써여 일지옥의 가두고 불효를 잡버드려 엽헤 노코 흥난 마리 네 죄목을 드러보라 …… 너는 웃더흔 사람이관디 게우르고 주식잡기만 조화흔 야 부모를 봉양 못흔고 부모의게 걱정만 되게 흔고 무슨 말슴을 헐시면 듯지

은이하고 눈을 흘기엿스니 네 죄 살지무석이라 하고 군줄을 호령하야 큰 칼
 썬우고 큰 북 지워 무수이 단이다가 이지옥으로 보느니 이곳은 만고의 불효만
 모엿더라 또 기집죄인 잡버드려 게하의 업허노코 슈죄하느 말이 너는 웃지하
 야 부르면 디답을 악적으로 하며 고성되독 싸움만 하고 남을 만나면 가늌를
 흠담하고 또 가장을 디하야 막심불공하야 혼 마디 하면 열 마디나 디답하고
 동괴간의 이간하야 닳투기를 일삼아스니 네 죄상니 중기로 용서치 못한다 하
 고 군줄을 호령하야 큰 북을 지우고 무수히 회환흔 연후의 습지옥의 가두니
 이곳은 만고의 불량흔 기집만 갓친 곳이라 이찌 슈다흔 죄인을 낫낫치 슈죄할
 식 너는 부처간의 불합하며 일가간 불공하야 소소한 전곡만 밋고 눈괴울 심각
 만 하고 또 남의게 음히하기만 조와하야쓰니 그 죄상이 큰지라 하고 악형으로
 치죄하니 그년 다 몬저 온 사람리너라(29~32쪽)

화자가 제시하는 장면에는 행실 불량자의 치죄 광경이 담겨 있다. 구체
 적으로 언급하면, 행실 불량자의 치죄 광경을 이성희가 목격했고, 이성희
 가 목격한 광경을 화자가 전하는 형국이다. 치죄 대상인 행실 불량자는 네
 가지 유형이다. 不忠한 자, 不孝한 자, 不烈한 자, 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가 그것이다. 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는 앞의 세 가지 유형과는
 분리되어 있다.²⁶⁾ 개화기에 새롭게 나타난 유형이어서 화자가 분리시켰으
 리라고 본다. 네 가지 유형을 근거로 하여 화자의 현실인식을 점검해보면,
 화자는 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가 새롭게 등장해서 不忠한 자, 不孝한
 자, 不烈한 자와 비등해졌다고 여기고 있다. 참으로 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 치죄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전통 윤리에 사로잡혀 개화기 풍조
 를 썬잡아 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다고 하지는 않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26) 앞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 다음 ‘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를 덧붙이는 모양새이
 기 때문에, 화자가 앞의 세 가지 유형과 나머지 한 가지 유형인 ‘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를 분리시켰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사안이다.

화자가 어떤 경우에 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다고 여기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해당 죄인의 죄목을 보면, 지상계에서 적디 적은 금전과 곡식을 지니고 자기보다 금전과 곡식이 적은 자를 경시하거나 남을 음해했다고 한다. 이 죄목에는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해당 죄인이 남을 경시하거나 음해한다는 점과 시대 풍조가 물질로써 인간의 위상을 평가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첫 번째 사실이야 항시 지탄받게 마련이지만, 두 번째 사실은 지탄받을지 지탄받지 않을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 사실에 대해, 전통 윤리에 집착하는 자는 부정적으로 볼 터이고 시대 변화에 민감한 자는 긍정적으로 볼 터이다. 개화기 이전에 이미 물질 중시의 풍조가 고소 설에도 반영되었다는 점²⁷⁾을 고려하면 『이계룡전』의 작자가 전통 윤리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시대 변화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화자의 시각에도 구멍이 없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를 들기로 한다. 우선, 효행 주체와 초월적 존재가 거래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효행 주체가 천지신명에게 돼지를 주고 사슴을 얻는다든지 천지신명이 이성희의 목숨을 고쳐주는 대신 이성희 처의 목숨을 요구한다든지 염왕이 이계룡에게 불잉결에 뛰어들면 이성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겠다고 한다. 세 가지 중 뒤의 두 가지는 시험의 성격이 있기는 하나, 시대 변화를 반영한다고 여겨 동원했으리라 본다. 그 다음으로, 世人의 욕망을 응시한다는 점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물욕이 크게 흐야 쥬야로 걱정흐니(51쪽)”라고 하는 데서 이 점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니, 화자는 시종일관 전통 윤리를 고수하고 있지 못하다. 시대 변화를 거부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종종 이끌려가는 화

27) 이현국, 『조선조 후기 소설의 현실 대응 양상과 그 의미 : 『이계룡전』 · 『허생전』 · 『홍부전』에 나타난 물질 문제를 중심으로』, 『語文學』72, 韓國語文學會, 2001, pp.299-308 참조.

자의 모습에서 특정 시각을 온전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계를 지니기는 하나, 화자의 집중력은 그야말로 대단하다. 전통 윤리, 그 가운데서도 절대효가 인간과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믿고, 작품 구성의 요소를 오로지 절대효와 관련시켰다. 화자가 인식한 당면한 문제는 ‘물질적 욕망으로 인해 본성을 상실한 인간 군상의 대두’이다. 치죄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죄인들이 화자가 경계하는 인간 군상이다. 다시 말해, 화자가 염왕처럼 치죄하고 싶어하는 죄인들이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욕망에 의지할 수 없다. 문제의 原因子인 물질적 욕망에게 해결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노릇이다. 화자에 의하면, 절대효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절대효가 아래로는 타인과 동물을 올리고 위로로는 천지신명을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결 권한은 절대효에게만 있다. 절대효가 기반을 다져서 우주를 움직일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법이 가능해진다.

현실주의에 경도된 독자들은 『이계룡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 현실주의가 작품 평가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계룡전』에서 내세우는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계룡전』에 의하면 효행 주체는 절대효로서 타인과 동물을 올리고 천지신명을 움직인다. 효행 주체가 대단한 권능을 보이기 때문에 개개의 효행 주체가 모여서 전체를 형성할 때 얼마나 큰 권능을 발휘할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 모든 가능성이 효행 주체의 절대효에서 시작된다. 절대효가 정신적 차원으로서 금전과 곡식이라는 물질적 차원과 상극이라고 볼 때, 『이계룡전』의 작자는 물질적 차원의 저급한 욕망에서 자기 시대의 병폐가 생겼다고 보고, 절대효라는 정신적 차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마디로 말해, 물질적 차원에 대한 정신적 차원의 대응이 『이계룡전』의 작자가 보여주는 현실인식이요 세계관이다.

V. 결론

『이계룡전』은 유일본으로서 신작 고소설이다. 신작 고소설이되 고소설과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고소설과의 연속성이 두드러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계룡전』의 연구라면 고작 두 편의 논문뿐이다. 두 편의 논문은 작품의 전반적 성격을 밝히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심층적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작품의 유형적 특징, 시대적 상황과 작품 내용의 관계, 작중인물과 화자의 가치관 및 세계관 등이 심층적 연구의 대상이다.

『이계룡전』에서는 효행담이 충행담의 비중보다 월등히 높다. 효행 범주는 아주 크게 설정하고 충행 범주는 아주 작게 설정했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이런 현상을 ‘大孝小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대효소충 구도를 뒷받침하는 동력은 우주론적 시각과 효 지상주의이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동력이 하나가 되면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목소리 즉 담론도 여간 크지가 않다. “孝는 지순하고 신성하며 절대적인 理이다. 어버이에게 지성을 다하면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천명을 수득할 수 있다. 효자는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담론이 그것이다.

대효소충 구도의 구체화 방법이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인물의 욕망과 사건의 전개가 『이계룡전』의 주된 특징이므로,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인물의 욕망은 곧 절대효 구현의 욕망이다. 인물이 자식의 도리 때문에 절대효를 구현하기도 했겠지만, ‘효행-포상’의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절대효 구현을 지향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사건의 전개가 보여주는 특징은 ‘누적과 비약’이다. 효행 주체에 극단적 효행이 중첩되기 때문에 누적적 구성이고, 효행이 거듭되다가 어느 순간 충의 권역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비약적 단계이다.

절대효가 대효소충 구도리 중핵이라고 할 때, 절대효가 어떤 위상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기 않을 수 없다. 효행 주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孝 추수주의’의 최면에 빠지고 ‘감정 없는 인간’이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화자가 효행 주체를 ‘감정 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까닭은 효행 주체를 내세워 개화기의 그릇된 현실과 맞서고자 함이다. 물질적 욕망이 선한 본성을 잃게 만든다고 여기니, 대안은 오로지 선한 본성에 바탕을 둔 절대효밖에 없다. 이 점에서 물질적 차원에 대한 정신적 차원의 대응이 개화기를 사는 작자의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三綱行實圖』, 『二程全書』, 『退溪全書』, 『孝經』.

2. 논문 및 단행본

곽정식, 「고소설에 나타난 冥府의 형상과 작중 역할」, 『語文學』94, (韓國語文學會, 2006), pp.179-188.

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 教學社, 1981, pp.639-642.

김덕균, 「성리학의 효사상 이해」, 『儒學研究』25, 忠南大 儒學研究所, 2011, pp.204-206.

김응환, 「〈이계룡전〉에 반영된 윤리덕목의 소설적 구현」, 『民族學研究』4, 韓國民族學會, 2000, pp.1-122.

남은희, 「『이계룡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2, pp.179-203.

소인호, 「저승체험담의 서사문학적 전개」, 『우리文學研究』27, 우리문학회, 2009, pp.119-125.

신태수, 「『晉陽志』〈孝行條〉의 담론 방식과 하층인의 효의식」, 『우리말글』64, 우리말글학회, 2015, pp.279-290.

_____, 『대청적 세계관의 전통과 서사문학』, 새문사, 2007, pp.14-17.

_____, 「『三綱行實圖』〈孝子篇〉의 功利的 談論」, 『어문학』127, 한국어문학회, 2015, pp.175-177.

이은숙, 「신작 구소설의 성격을 통해 본 연구 전망」, 『국어문학』34, 국어문학회, 1999, p.349.

이현국, 「조선조 후기 소설의 현실 대응 양상과 그 의미: 『이계룡전』·『허생전』·『홍부전』에 나타난 물질 문제를 중심으로」, 『語文學』72, 韓國語文學會, 2001, pp.299-308.

李賢洙, 「古典小說에 나타난 冥府說話 考究」, 『韓國文學研究』4, 東國大 韓國文學研究所, 1981, p.121.

任明玉, 「中國割股孝行故事 小考」, 『中國學論叢』9, 韓國中國文化學會, 2000, pp.195-22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4』, 지식산업사, 1986, p.205.

조재현, 「고전소설에 나타난 저승계 연구」, 『어문연구』3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pp.170-171.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이정우 역, 새길, 1998, p.17.

Abstract

Composition of Filial Duty Discourse in *Lee Gye-ryong Jeon*

Shin, Tae-Soo

Lee Gye-ryong Jeon as the only version is “a new work ancient novel showing prominent continuity with old Korean novels.” As for composition, the novel has a well-defined feature: it forms a composition of “great filial duty and small loyalty” setting up large scope of filial behaviors and small scope of loyal behaviors. Its author focuses on “desires of characters” and “development of events” in order to materialize the composition. The desires of characters are shown as “the desires for realizing absolute filial duty,” while the development of events are shown in “the accumulation and jump.” The novel attempts to raise status of the absolute filial duty via materialization in order to reinforce functions of the absolute filial duty. Then, what functions do absolute filial duty perform have? It not only makes the main agents of filial behaviors “emotionless persons” but excludes material desires in the time of enlightenment of Korea. In this context, the author may suggest facing the material levels with the mental levels as a solution for living in the enlightenment time.

Key Word : great filial duty and small loyalty, absolute filial duty, the accumulation and jump, material desires, emotionless persons.

신태수

소속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자우편 : djgjgj@daum.net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